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 호랑이를 중심으로 -

김기호*

<차례>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그림자(shadow)와 호랑이 형상
4.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호랑이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분석심리학적 관점과 발달론적 관점에서 설화 내 호랑이의 상징과 역할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호랑이 상징으로 '그림자로서 호랑이'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 '그림자의 대극합일로서 호랑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둘째 세 가지 호랑이 상징이 각각 아동 혹은 청소년의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아동 혹은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을 자극하는 상위의 발달 단계를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 '그림자로서 호랑이군' 설화는 의식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그림자를 대면해야 할 아동들에게 그림자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 모델로 보았다.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군' 설화는 의식 내 그림자의 수용, 인정,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대면해야 할 아동들에게 이들을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 모델로 보았다.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 설화는 그림자의 대극합일을 대면해야 할 발달 단계에 이른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게 그림자의 대극합일을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 모델로 보았다. 아울러 호랑이 설화가 그림자 영역을 통해 발달을 자극하고 견인한다는 점에서 동일 동물 트릭스터 범주에 속하는 토끼,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여우, 메추라기 설화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제어 동물 설화, 호랑이, 그림자, 대극합일, 발달 모델

1. 머리말

설화에는 들짐승과 숲 짐승(개미, 곰, 벌, 여우, 토끼, 사슴, 고슴도치, 쥐, 노루, 뱀, 호랑이, 늑대 등), 가축(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염소 등), 수서동물(물고기, 개구리, 두꺼비 등), 대기 중의 동물(독수리, 까치, 매, 닭, 까마귀, 비둘기 등), 물새 등 여러 동물이 등장한다.¹⁾ 가령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전12권)에 채록된 설화 내에는 주요 인물로 토끼, 호랑이, 꿩, 개, 이, 벼룩, 개미, 쥐, 원숭이, 여우, 메뚜기, 빈대, 두꺼비, 메추라기, 지렁이, 수달, 물새, 개구리, 까치, 매기 등이 보인다.²⁾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국어 교재에 수록된 21편의 설화 작품들 중 7편이 동물 설화로 이들 작품에는 호랑이, 토끼, 꿩, 개구리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설화 내 동물 형상을 두고 이들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하는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토끼에게 말했다.”라는 사실에서 “호랑이도 말을 합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청자는 없다. 이야기 내 동물의 본능 또한 순수 동물의 본능이라 하기 어렵고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이야기 내 호랑이가 탐욕스럽다고 할 때, 그 호랑이의 탐욕은 동물 호랑이의 탐욕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호랑이와 같은 탐욕’이다.

1) 최연숙, 『동화가 갖는 치유적인 힘』 발표 자료집, 대구미술치료연구소, 2008년 3월, p.3.

2) 김용의,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1)」, 『일본어문학』 제1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1, pp.79~114.

그것은 호랑이가 동물(動物)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人間存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화 내 동물 형상은 의인적 동물(anthropomorphic animals), 혹은 상징적 동물(symbolic animals)이라는 결론에 이른다.³⁾

상징적 동물은 심리적·사회적·문화적 복합체(complex)이다. 그러므로 설화가 향유자들의 내면 성장과 사회화, 그리고 문화 계승의 역할에 기여해왔다⁴⁾고 주장할 때, 동물 설화 또한 이러한 주장의 예외일 수는 없다. 심리학 특히 아동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물 설화가 발달을 이끌어 내는 발달 자극의 모델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동물 설화는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과 더 높은 인격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기”⁵⁾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물 설화는 아동의 내적 갈등을 자극 및 조장하며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의 발달을 성취하게 한다. 더 높은 인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달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동물 설화의 의의란 적지 않다.

동물 설화의 발달 모델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호랑이 설화이다. 호랑이 설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호랑이 형상이 일견 위계화(位階化)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일견 위계화된 느낌은 그의 형상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 그 이상의 단계를 위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받는다. 초기 발달 단계의 수준은 그의 어리석은 형상에서 발견된다. 이 수준의 호랑이는 일관되게 속이지만 속고,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식욕이나 성욕 등 본능 충족을 위해 어떠한 정서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호랑이는 사회 내 건강한 역할 곧 탈중심화 혹은

3) Marie-Louise von Franz,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Fairy Tales*, Univ. of Dallas, 1978, p.24.

4) Bruno Bettelheim,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1, pp.13~36.

5) 위의 책, p.44.

사회화된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수준의 호랑이는 탈중심화의 측면에서 초기 발달 단계의 호랑이와 구별된다. 한편 호랑이는 때로 사회화 수준을 넘어 신성한 존재로서 정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호랑이는 신의 사자 혹은 영적 대리자 역할을 한다.

자기중심적 호랑이, 탈중심화된 호랑이, 영적 호랑이 등 일견 위계화된 느낌을 주는 호랑이가 잠재적 향유자인 아동의 성장과 어떤 상관성을 띠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동물 설화의 발달 심리학적 역할을 구명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 설화 중 호랑이 설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대상으로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의 문제를 설정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호랑이는 어떠한 심리적·사회적 상징을 띠는가?

둘째, 호랑이의 심리적·사회적 상징은 잠재적 수용자인 아동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민담의 하위 영역으로 뚜렷이 인식되고 분류되는 동물 설화는⁶⁾ 총체적 구조로 짜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⁷⁾ 이에 대한 논의가 계몽성과 오락성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동물 설화가 계몽성과 오락성을 뚜렷이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징 복합체로서 동물 설화에 대한 논의가 특히 계몽성으로 한정됨으로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내용을 포함한 동물 설화는 오늘날 배척되는 문제를 낳았다. 잔혹 동화가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읽히는 시점에서 이를 염려하는 부모들 중에는 반사회적이

6)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일조각, 1990, pp.55~56.

7) Verena Kast, 최연숙 옮김, 『동화와 심리치료』, 열린시선, 2008, p.7.

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동물 설화마저 잔혹 동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가령 폭력적이고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근거로 동물 설화를 개작해야 한다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잔혹 동화와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물 설화의 총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본고에서 시도하는 호랑이 설화의 상징과 그 역할에 대한 구명은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호랑이 설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호랑이 설화의 총체적 상징과 그 역할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는 호랑이 설화의 층위와 폭이 너무나 깊고 넓다고 해야겠다. 따라서 본고는 관점의 제한을 두고 상징과 역할을 밝히기로 한다. 또한 본고의 주장을 동물 설화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각각의 동물 형상은 그 자체의 고유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설화의 상징과 역할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 설화에 대한 계몽적·오락적 논의를 넘어서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설화 내 호랑이는 단형으로 규정될 수 없는 성격의 소지자이다. 단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국 설화 내 호랑이의 다가치적(多價值的) 성격에 주목한 칸다⁸⁾는 하이니스가 제시한 여섯 개의 트릭스터 준거에⁹⁾ 따라 호랑

8) Edward R. Canda, "The Korean Tiger : Trickster and Servant of the Sacred", *Korea Journal* 21/11, 1981, pp.22~38.

9) W.J.Hynes, *Mythical Trickster Figure-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s*, Tuscaloosa &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3, pp.33~45.

이를 트릭스터(Trickster)로 규정한다. 하이니스가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트릭스터는 여섯 개의 조건 곧, ① 근본적으로 애매한 그리고 비정상적인 심리 ② 기만자 및 술책을 부리는 자 ③ 모습을 바꾸는 자 ④ 상황을 역전시키는 자 ⑤ 신의 사자이자 모방자 ⑥ 신성하면서도 외설적인 뺨장이 등을 갖춘 인물이다. 호랑이의 경우 기만과 술책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지만 나머지 다섯 개 곧 비정상적인 심리, 모습을 바꿈, 상황의 역전, 신의 사자, 외설스러움 등의 조건도 갖춘 인물이다. 물론 외설스러움에는 그 정도의 차이는 보인다.¹⁰⁾ 따라서 본고는 단형으로 규정될 수 없는 다가치적 성격을 갖춘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규정한 칸다의 견해를 따른다.

일찍이 라딘은 다가치적 성격을 갖춘 트릭스터 인물을 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한 어떤 고대의 스페큘럼 멘티스(*speculum mentis*) 앞에 서 있다.”라고 했다.¹¹⁾ 이것은 트릭스터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심리학적인 것임을 의미하며,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문화적 맥락 하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결국 환원주의로 귀결되며 일반론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정으로 본고는 첫째 다가치적 성격

10) 이들 여섯 개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규정하는 데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될 수는 없다. 가령 호랑이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규정할 수는 없다. 물론 한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해서 트릭스터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가령 기만이나 술책을 부리지 않더라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인물은 트릭스터라 할 수 있다. 요는 기만과 술책이 트릭스터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자와 관련해서 미리 말하면 트릭스터를 그림자라 할 때 기만과 술책의 자질은 그림자의 한 속성일 뿐으로 기만과 술책이 그림자를 규정하는 절대적 조건은 될 수 없다.

11) Paul Radin, *The Trickster-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6, X.

의 소유자인 호랑이와 인간 심리와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둘째 호랑이가 상징하는 인간 심리와 호랑이 수용자와의 상관성을 밝힌다. 전자는 호랑이의 심리학적 상징 구명이며 후자는 수용자에 대한 호랑이의 발달론적 역할에 대한 구명이다. 본 장에서는 호랑이의 심리에 대한 상징 분석에 앞서서 본 관점의 이론적 배경이 된 분석심리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트릭스터 인물에 대한 분석심리학자들의 연구사적 맥락을 탐색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진화론적 심리학의 관점을 견지한 라딘은 북아메리카 위네바고족 트릭스터 설화의 주인공 왁준카가에 주목했다. 그는 왁준카가가 인류의 심리적·육체적 진화의 원초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주도로 채록하고 영역한 왁준카가 자료를 융에게 제시하고 분석심리학적 통찰을 요구했다.¹²⁾ 이에 대해 융은 트릭스터 왁준카가를 그림자(shadow)로 정의했다. 융이 왁준카가에 대해 규정한 그림자는 라딘이 말한 인류의 원초형과 상통한다. 왜냐하면 융 또한 왁준카가를 신화의 탄생 이전에 존재했던 말하자면 대단히 초기에 존재했던 인류의 의식단계를 가리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³⁾ 라딘과 융을 통해 트릭스터는 고등화된 의식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류 초기의 기억들인 그림자로 규정되었다.¹⁴⁾

라딘과 융의 견해를 받아들인 분석심리학자 헨더슨의 경우는 트릭스터

12) 위의 책, p.168.

13) 위의 책, pp.195~211.

14) 그림자를 인류 초기의 기억들 혹은 문명화 과정에서 억압된 기억들이라 할 때 트릭스터의 일반적 속성은 그림자의 속성이기도 하다. 가령 '속임수'의 경우 그림자의 한 속성이다. 하지만 속임수 그 자체만을 두고 트릭스터를 규정할 수 없듯이 속임수 그 자체만을 두고 그림자라 정의 할 수는 없다. 트릭스터든 그림자든 그들의 정체는 속임수를 포함한 전체 상 속에서 규정된다.

를 미숙한 인생의 초기 단계 곧 유년기의 심리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규정했다. 그는 인생의 초기에 트릭스터적 경험을 충분히 겪음으로써 무책임한 소년기는 청년기로 성숙해 간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트릭스터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육체이며, 그의 지능은 유아적이다.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고 잔인하고 냉소적이며 냉혹하다.¹⁵⁾ 헨더슨의 경우 융의 그림자 개념을 이어받았지만 성장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발달의 한 단계로 규정하였다. 융이 무의식의 한 원형인 그림자로 보았다면, 헨더슨은 인생의 성숙과 자기실현을 위해 이것을 유년기의 의식에 적극 수용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심리학자이며 꿈 작업 전문가인 제레미의 경우도 트릭스터 인물에 관해 융과 헨더슨의 관점을 수용한다.¹⁶⁾ 하지만 그는 인류의 초기나 유년기로 한정하지 않고 인생의 고비마다 출현하여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로 규정하였다. 즉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무의식의 표상으로 보았다. 제레미는 트릭스터가 의식의 수준에 떠올라 유희(pun)를 즐기는 존재임과 동시에 의식적 삶에 변화를 요구하는 존재로 본다. 제레미의 입장에서 보면, 트릭스터는 인류의 유년기 경험도 아니고 한 개인이 성숙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유년기 경험도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요한 고비마다 나타나 '주도적인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의식의 사자(使者)이다.

분석심리학자이며 서사학자인 낸시 또한 트릭스터를 그림자로 보는 융

15) 칼 G. Jung,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996, pp.112~118.

16) 제레미 테일러는 2005~2007년 사이에 해마다 대구를 방문하고 꿈 워크숍을 개최했다. 트릭스터에 관한 제레미의 생각은 2006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개최된 꿈 워크숍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에 소개된 그의 저서는 대표적으로 사람이 날아다니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고혜경 번역, 동연, 2007)이 있다.

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그는 트릭스터를 ‘모든 대립을 포괄하는 역설(paradox)’로 이해한다. 역설이란 모순과 모순의 인정, 모순의 수용, 변화, 그리고 모순의 통합 등을 포함하는 과정에 대한 명명이다. 역설은 모순이 새로운 차원의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트릭스터는 변화 없음에 모순을 도입하고 그 모순을 통합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트릭스터를 그림자(shadow)로 이해하면서도 트릭스터를 다층성을 확보하고 의식에 새로운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자이며, 파괴자이자 창조자로 본다. 역설의 존재로서 트릭스터는 삶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 결과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존재이다.¹⁷⁾ 낸시는 제레미의 관점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지만 트릭스터가 창조하는 변화를 역설의 개념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혀주었다. 아울러 그는 트릭스터 이야기 만들기(story making)와 만든 이야기의 행위화(acting)가 역설의 창조를 경험하게 한다고 본다.

다가치적 인물 트릭스터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논의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라딘과 융이 참여한 단계로 다가치적 인물의 정체에 관한 규명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트릭스터는 초기 인류의 심리적·육체적 진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무의식에 속한 그림자(shadow)로 규정된다. 2단계는 헨더슨과 제레미가 참여한 단계로 트릭스터의 기능에 관한 논의 단계이다. 두 사람은 트릭스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 개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성숙과 변화의 매개체로 보았다. 3단계는 낸시가 참여한 단계로 2단계의 기능을 수용함과 아울러 트릭스터 인물의 적극적 활용에 관한 단계이다. 낸시의 경우 트릭스터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 만들기를 함으로써, 혹은 만들어진 트릭스터 이야기를 행위화함으로써 치료와 창조의 트릭스터 기능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17) Alida Gersie & Nancy King, *Storymaking in Education and Therapy*, Stockholm Institute of Education Press, 1992, pp.192~194.

본 발표는 텍스트와 텍스트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앞의 두 단계의 논의를 수용한다. 1단계의 정체 규정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 수준에서 호랑이의 심리적 상징 혹은 정체를 구명하는 데 원용된다. 특히 용의 관점인 트릭스터를 무의식의 제1원형인 그림자(shadow)로 본 관점을 따른다. 이 관점에 따라 III장에서는 호랑이 형상이 그림자의 현시(顯示), 의식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그림자의 대극 합일 등의 상징임을 밝힌다. 2단계 기능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원용된다. 수용자들에게 트릭스터 호랑이 이야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특히 성숙의 매개자 기능이 원용된다. 이 관점에 따라 IV장에서는 수용자를 이동 혹은 청소년으로 상징하고 호랑이 상징이 이동 혹은 청소년의 내적·사회적 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한편 3단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본고에서는 원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가 텍스트와 텍스트 수용으로 한정된 것인 만큼 텍스트 만들기 활동은 제외된다. 하지만 트릭스터 호랑이 이야기 만들기과 행위화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매력적인 작업이다. 오늘날 설화의 향유가 들려주기에 따른 청취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만들기과 행위화를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은 과제이긴 하지만 설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면에서 3단계 작업은 중요하다.

3. 그림자(shadow)와 호랑이 형상

(1) 그림자로서 호랑이

호랑이 설화 중에는 반사회적인 호랑이가 등장한다. 호랑이는 초보의

분화되지 않은 무질서한 사고과정을 보인다. 자기중심성과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관점의 이동이 없는 고정된 사고와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인다. 더욱이 금기의 위반, 충동, 가깝게 서로 배려하는 사قم의 결여,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명백한 무시,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데서 보여준 무능력, 불안감이나 양심의 가책 결여, 계속된 흉내 내기와 속임수의 사용, 유치한 행동 등은 초보의 분화되지 않은 무질서한 사고와 관련된 듯하다. 공동체 사회 내에 일정한 위치와 역할을 할당 받지 못한 인물로 사회화 혹은 사회의 기준에 동화하는 데 실패한 인물이다.

사회화에 실패한 인물의 성격을 보이는 대표적인 호랑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 등장한다. 호랑이의 행위와 사고는 사회화 혹은 사회의 기준에 동화하는 데 실패한 인물임을 보인다. 호랑이는 질서를 혼란으로, 안전을 위협으로, 생산적인 상황을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파괴자이자 해체자이다. 한 마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기존의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위험한 인물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의 이야기 줄거리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자료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줄거리

1. 호랑이가 고갯마루를 지나가는 부인을 잡아먹기 위해 기다린다.
2. 호랑이가 팔죽을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부인에게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다.
3. 호랑이가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을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18) 제시된 (자료1)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2) pp.125~127, 『한국구전설화』(3) pp.242~244, 『한국구전설화』(4) pp.166~168, 『한국구전설화』(6) pp.303~305, 『한국구전설화』(10) pp.117~119와 『한국구비문학대계』3-4 pp.782~788에 채록된 설화의 공통된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다.

4. 호랑이가 부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인을 잡아먹는다.
5. 호랑이가 부인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머니라고 거짓말을 한다.
6. 호랑이가 젖을 주는 척하면서 어린 아기를 잡아먹는다.
7. 호랑이가 아기 손가락을 던지는 것을 계기로 그의 정체가 탄로 난다.
8. 호랑이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아이들의 말에 속는다.
9. 호랑이가 우물 안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이 우물 속에 들어간 줄 안다.
10.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그들을 설득한다.
11. 호랑이가 아이들이 간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하느님에게 거짓말을 한다.
12. 호랑이가 썩은 줄을 새 줄인 줄 알고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13.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다.

(증거 : 수숫대가 붉어진 이유와 달과 해의 유래를 이야기한다.)

자료1의 줄거리에서 호랑이는 철저하게 식욕 본능에 종속된 인물이다. 호랑이는 자신의 식욕 충족을 위해 어떠한 생산적인 노동도 할 생각이 없다. 호랑이는 희생양을 선택하고 그 희생양을 속여서 자신의 위장을 달래는 일에만 몰두한다. 희생양을 삼는 데 어떠한 윤리적 제한도 그에게는 작동되지 않는다. 혼자 두 아이 혹은 세 아이를 키우는 이주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고, 찢먹이 아기 또한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다. 오누이를 먹기 위해서는 신마저 속임수의 대상이 된다. 호랑이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제약도 윤리적 제약도 심지어 초월자의 제약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의 개념과 상응한다.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그림자는 무의식에 위치한 열등한 인격이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남들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의식에서 배제되어 무의식으로 억압된 자아

의식의 여러 가지 성격 측면이다. 용의 이러한 심리학적 그림자는 자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의식하지 못하는 뒷면, 즉 자아의 무의식 측면에 있는 나의 짝, 나의 또 하나의 어두운 형제이다.¹⁹⁾ 용은 정신적 암흑기 상태에서 암중모색하고 있었던 때인, 신화의 탄생 이전에 존재했던 대단히 초기에 존재했던 의식 단계로 본다. 자료1에서 보인 호랑이의 여러 성격적 특징은 무의식에 억압된 자아의식의 여러 가지 열등한 성격 곧 용이 말한 그림자와 상응한다.

그림자의 속성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의 호랑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랑이 서사 줄거리 속에 투영된다. 수준 이하의 상황 판단력을 보이는 <호랑이와 꽃감>²⁰⁾의 호랑이, 토끼의 꾀에 반복적으로 속는 <호랑이를 속인 토끼>²¹⁾의 호랑이, 할머니마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도덕불감증을 보이는 <호랑이와 할머니를 도운 여러 사물>²²⁾의 호랑이,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는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²³⁾ <호랑이와 소금장수>²⁴⁾ <호랑이와 불총>²⁵⁾ <호랑이 귀신>²⁶⁾ <호랑이와 수달>²⁷⁾ <호랑이를 방아 찧게 한 어린아이>²⁸⁾ 등의 호랑이, 본능 앞에 가치와 정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노골적으로 보인 <은혜 모르는 호랑이>²⁹⁾ <암체질한 호랑이>³⁰⁾ 등

19)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7, p.125.

20) 한상수, 『한국민담선』, 정음사, 1977, pp.135~136.

21) 한국구비문학대계』4-6, pp.616~617.

22) 한국구비문학대계』2-3, pp.516~518.

23) 한국구비문학대계』2-6, pp.190~191.

24) 임동권, 『한국의 민담』, 정음사, 1977, pp.43~45.

25) 한국구비문학대계』1-3, pp.421~423.

26) 최웅, 김용구, 설화』, 국학자료원, 1998, p.583.

2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4), 평민사, 1990, pp.137~138.

28) 임석재, 『한국구전설화』(2)』, 평민사, 1990, p.122.

의 호랑이, 초월적 변신의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것이 본능과 자기중심성에 종속된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³¹⁾의 호랑이, 인간을 성육의 대상으로 삼은 <호랑이를 쫓은 처녀>³²⁾의 호랑이 등은 그림자의 반영이다.

(2)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

호랑이 설화 중에는 그림자로서 호랑이와 사회화된 인물로서 호랑이 이 둘의 성격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보인다. 진화의 심리학으로 보면 그림자로서 호랑이와 사회화된 인물로서 호랑이 이 둘의 결합 과정은 자기(self) 발전에서 그림자 단계로부터 사회화 단계로 이행하는 개성화와 상응한다. 이 유형의 이야기들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하지만 더하여 사회화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호랑이 이야기들과는 구별된다. 사람과 결의형제(結義兄弟)를 맺는 호랑이 이야기가 이러한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은 이 유형의 이야기를 요약한 줄거리다.³³⁾

(자료2) <결의형제> 이야기의 줄거리

1.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2.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다가 목에 물건이 걸린다.

29) 한국구비문학대계』1-4, pp.723~725.

30) 임동권, 『한국의 민담』, 정음사, 1977, pp.38~42.

31) 한국구비문학대계』7-2, pp.682~690.

32) 유중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pp.459~460.

33) 제시된 자료2의 작품 <결의형제>의 줄거리는 한국구비문학대계』5-5 pp.495~497, 『한국구비문학대계』6-5 pp.361~368, 한국구비문학대계』8-6 pp.110~119, 한국구비문학대계』8-10 pp.402~497, 한국구비문학대계』8-12 pp.345~350, 한국구비문학대계』8-14 pp.222~229, 한국구비문학대계』6-9 pp.625~631에 채록된 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3. 호랑이가 비너를 제거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의형제를 맺는다.
4. 호랑이가 형을 위해 돈과 재물을 훔쳐온다.
5. 호랑이가 형을 처갓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훔친 말의 가죽을 쓴다.
6. 호랑이가 형을 위해 벌레로 변신한다.
7. 호랑이가 형을 위해 말가죽을 쓴다.
8. 호랑이가 형의 부와 출세를 위해 고의로 행패를 부린다.
9. 호랑이가 형의 고마움에 보답한다.

자료2의 줄거리에서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반사회적·반윤리적 존재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사회화된 인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나는 계기는 호랑이 자아의 반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따뜻한 호혜적 정서를 자극하고 그러한 자극의 힘이 호랑이의 이성을 움직인다. 그리하여 호랑이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의형제를 맺을 것을 제안한다. 호랑이는 자신의 제안이 수용된 다음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헌신한다. 형을 위해 돈과 재물을 가져오고, 장가를 들게 해주며, 사회적 고립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갓집 사위가 되게 해준다. 이 모든 행위는 호랑이가 자기중심성에 갇힌 그림자 존재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호랑이의 행위에는 여전히 그림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료2의 4번에서 호랑이는 형을 위해 타인의 돈과 재물을 훔쳐 온다. 5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훔친 말의 가죽을 쓴다. 6에서는 형을 위해 자신을 벌레로 변신한다. 7에서는 달리기 경주에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 말가죽을 쓴다. 8에서는 형의 벼슬길을 위해 고의로 행패를 부려 형이 위업을 이루게 한다. 그림자가 합리와 이성을 주관하는 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훔치기, 변신하기, 경쟁하기, 속이기,

술책 부리기, 흉내 내기 등 그림자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림자 존재에서 의형제 맺기란 수평적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화된 존재로 변화되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화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림자의 속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초기의 그림자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유지되면서 일정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초기의 그림자는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반성적 의식과 조우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반성적 의식과의 조우(encounter) 이후 의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림자는 의식과의 조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의식의 탈중심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2의 1-2번까지는 그림자의 출현과, 3번은 그림자와 의식의 조우와, 4-9번까지는 그림자를 통한 의식의 변화·발전과 관계된다. 이러한 그림자의 출현과 조우, 그리고 힘의 작용이 형을 위한 이타적 행위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림자의 수용과 인정을 통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한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점은 호랑이를 생명 상실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만큼 그림자의 의식 내 조우와 수용에는 생명의 위기와 대면할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기를 통해 그림자를 의식 내에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 등에 관한 서사화는 결의형제라는 기본 줄거리를 토대로 다양하게 서사화 된다. <효성에 감동된 호랑이>³⁴⁾, <호랑이 형님>³⁵⁾, <호랑이와 시골 선비>³⁶⁾, <호랑이의 보은>³⁷⁾, <호랑이 꼬리에 흰털이 생긴 이유>³⁸⁾, <호랑이 덕에 장가든 소

34) 한상수, 『한국민담선』, 민음사, 1977, pp.142~143.

35) 최운식, 『충청남도 민담』, 집문당, 1984, pp.13~18.

36) 김요섭, 『금강산 호랑이』, 공문사, 1982, pp.28~32.

금 장수>³⁹⁾, <호랑이 형님 덕택에 출세한 머슴>⁴⁰⁾, <호랑이 형제 삼아 출세한 숲장수>⁴¹⁾, <호랑이의 동생이 된 사람>⁴²⁾ 등의 이야기들은 그림자의 인정과 수용에 관한 서사적 보고들이다. 특히 <연인을 위해 희생한 호랑이>⁴³⁾의 경우 은혜의 정서가 아닌 사랑의 정서를 통해 그림자의 존재가 대자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상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의식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라는 점에서 다른 호랑이들과 구별된다.

(3) 그림자의 대극합일(對極合一)로서 호랑이

대극합일이란 양극단 곧 모순의 합일이다. 대극합일의 개념은 음과 양의 변증법적 변형을 우주의 움직임의 독특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도입한 역경(易經)에서도 보인다. 역경의 대극합일은 음과 양, 대극의 통합을 향하여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향하여 우주는 끊임없이 흐른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우주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또한 이러한 변증법적 합일을 향하여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분석심리학적 관점이다. 음은 내면의 끊임없는 대극들이 합일되는 지향점을 만다라에서 확인한다. 이처럼 우주와 인간은 끊임없는 대극합일의 과정에 참여하며 궁극적으로 대극합일의 덕(德) 곧 인간과 자연의 덕(德)에 일치해 가는 과정에 놓인 존재이다.

문학에서 대극합일에 대한 인식의 표명은 역설(paradox)이다. 역설은

37) 한국구비문학대계』2-5, pp.102~104.

38) 한국구비문학대계』2-6, pp.587~594.

39) 한국구비문학대계』3-3, pp.322~327.

40) 한국구비문학대계』7-14, pp.521~544.

41) 한국구비문학대계』8-5, pp.1004~1009.

42) 한국구비문학대계』8-11, pp.628~631.

43) 한국구비문학대계』5-3, pp.422~428.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개념 곧 모순 개념, +와 -의 개념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극합일로 도약하는 수사법이다. 이때 대극합일은 두 모순의 합이면서 그 이상인 제3의 개념이다. 그림자의 대극합일로서 호랑이는 역설의 존재이다. 무의식의 제1원형인 그림자의 호랑이와 의식의 사회적 존재인 호랑이 이 둘의 역설적 합이 대극합일로서 호랑이다. 대극합일로서 호랑이는 영(靈)적 존재로 형상화된다. 반신(半神) 혹은 신(神)이다. 이 경우 호랑이는 산신령(山神靈) 혹은 신의 사자(使者)이다. 역설적 존재인 호랑이는 그림자 호랑이와 탈중심화된 호랑이와 구별되는 존재이다. 대극합일의 존재로서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인 <신의 사자>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자료3) <신의 사자>의 기본 줄거리

1. 호랑이가 신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잡아오도록 명을 받는다.
2. 호랑이가 신을 위해 사람으로 변신한다.
3. 호랑이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킨다.
4. 호랑이가 인간을 위해 신의 명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5. 호랑이가 신의 명을 어기고 신의 세계를 떠난다.

자료3에서 호랑이는 신의 사자(使者)이다. 신은 호랑이에게 어떤 사람을 잡아오라는 소명을 호랑이에게 내린다. 신의 소명을 받은 호랑이는 신의 사자가 된다. 호랑이는 신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을 하고 인간 세계에 등장한다. 하지만 인간의 처지를 본 호랑이는 신의 명을 어길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호랑이는 신의 사자이지만 신의 소명

44) 제시된 자료3의 <신의 사자> 줄거리는 한국구비문학대계』5-3 pp.410~415, 한국구비문학대계』6-8 pp.409~415, 그리고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1) pp.156~157에 채록된 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을 완수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호랑이는 인간의 세계를 떠나지만 신의 세계로 합류하는 것도 아니다. 호랑이가 속한 혹은 호랑이가 주관하는 세계는 인간의 세계도 신의 세계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세계이다.

제3의 세계에 속하는 호랑이는 따라서 신의 사자로서 반신(半神)적 존재이면서 인간의 원조자이다. 호랑이의 신적 혹은 반신적 정체는 그림자 존재와 탈중심화된 존재의 대극합일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는 사회화된 인물도 아니지만 반사회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는 사회화된 인물이면서 반사회화의 그림자이다. 그는 어느 한 정체로 규정되지 않는 제3의 정체이다. 이것이 호랑이가 보여주는 역설이다. 양립할 수 없는 두 모순 개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수용하고 변화시킨 결과로서 도달한 개념이 대극합일로서 영적(靈的) 호랑이다. 따라서 신의 사자로서 호랑이는 역설의 존재이며 변증법적 합일의 경지를 표상한다. 역설의 호랑이는 단일성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단일성은 그림자적 존재와 탈중심화된 존재로 이루어진 단일성이다.

역설적 존재로서 호랑이의 영적 단일성은 ‘호랑이의 신기한 눈썹’ 유형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이상한 호랑이 눈썹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눈썹은 사람의 가면에 숨은 진면목의 모습을 보게 한다. 마법의 눈썹을 가진 호랑이는 신적(神的) 혹은 반신적(半神的) 존재와 동일시된다.

(자료4) 범의 눈썹

백호라는 것은 사람을 백 명이나 잡아먹어야 되는 범이라구 한다. 이 백호라는 거는 사람으로두 변할 수 있구 사람에게 말두 할 줄 안다구 한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중이 돼서 도를 닦구서 네레오년데 어니 높은 산 밑에 오느꺼니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 중은 그 사람들과 와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능가 하구 물으느꺼니 이 고개에는 백호가 있어서 사람을

잡아먹으느끼니 혼자서는 고개를 넘을 수 없구 백 명이 모여서 같이 넘어가야 안 잼히워 먹히느끼니 사람 백 명 모일 때까지 기다리누라구 모여 있다 하멘 이 중보구두 백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넘자구 했다. 중은 일 없다, 혼자라두 무사히 넘을 수 있다 하구서 산으루 올라갔다. 하하 올라가서 산 고개에 이르느끼니 고기에 노친네가 앉아 있었다. 중은 이 노친네레 아매두 백호 같다 하구서 노친네한테루 가까이 가서 노친네레 사람이 백호가 하구 물었다. 그러느끼니 노친네는 난 백호다구 대답했다. 중은 노친은 와 사람을 잡아먹능가 하구 물었다. 그러느끼니 노친은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 나는 짐승만 잡아먹는다 해멘서 눈썹을 하나 뽑아 주멘 이것을 눈에다 대구 데 아래 사람들을 보라구 했다. 중은 범에 눈썹을 눈에다 대구 산 밑에 모여 있는 사람을 보느끼니 이저껏 사람이든 거이 소 말 돼지 가이 달루 보였다. 범에 눈썹을 떼구 보면 짐승으루 보이든 것이 도루 사람으루 보였다. 노친네는 당신은 사람으루 보이느끼니 안 잡아먹는다구 했다. 중은 백호 눈썹을 개지구 집에 와서 저에 색시를 보느끼니 색시는 달루 보였다. 그래서 중은 색시를 달루 보이는 남당을 얻어 주구 자기는 사람으루 보이는 색시를 얻어서 잘살았다구 한다.⁴⁵⁾

(자료4)에서 마법의 눈썹을 지닌 호랑이는 창조적이고 성스러운 힘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의 술책은 마법적이다.⁴⁶⁾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그가 잡아먹는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존재들이다. 그는 추락한 인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질서의 회복자이자 새로운 수준의 질서를 창조하는 질서의 창조자이기도 하다. 산속의 노인으로 등장하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살인의 호랑이가 아니라 산신령(山神靈)과 동일시된다. <범의 눈썹>뿐만 아니라 마법의 눈썹을 지닌 호랑이 이야기는 <이상한 호랑이 눈썹>⁴⁷⁾ <호랑이 눈썹의 효험>⁴⁸⁾ <신기한 호랑이 눈

45) 임석재, 『한국구전설화』(1), 평민사, 1989, pp.155~156.

46) Edward R. Canda, 앞의 논문, pp.22~38.

썸>49) 등의 이야기에서 반복된다.

신의 사자로서 또는 산신령과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호랑이는 그림자도 아니며, 그림자의 동력을 통해 변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의 인물도 아니다. 그는 신적 혹은 반신적 존재로서 전체성(全體性)을 상징한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전체성은 개성적인 자기(self)가 지닌 가능성을 온전하게 발휘되는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혹은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월의 상징은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합일의 존재인 호랑이는 그 자체가 인간의 노력을 나타내는 살아 있는 상징이다.⁵⁰⁾

4.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호랑이

호랑이 설화의 호랑이 형상은 그림자,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그림자의 대극합일 등의 상징으로 그 형상이 분석되었다. 이들 세 유형의 이야기에 대해 <그림자 호랑이군>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군>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으로 명명을 부여할 때 이 세 유형의 이야기군은 진화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발생 및 진화하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는 여전히 반론과 논쟁이 뒤따른다. 과연 이러한 진화론적 주장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진화론 비판에서 제기되는 많은 주장들이 이러한 결론을 향하여 겨냥될 때 이 주장이 펼칠 반론의 근거는 허약하다.

4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1), 평민사, 1989, p.175.

48) 한국구비문학대계』7-4, pp.194~195.

49) 한국구비문학대계』9-3, pp.664~667.

50) 칼 G. Jung, 이윤기 옮김, 앞의 책, pp.149~150.

세 유형의 호랑이 이야기군이 개성화와 관련하여 일련의 연속적·계기적 상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호랑이 설화들과 관련해서 진화론적 가능성이 배제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진화론적 해석의 위험을 고려할 때 진화론적 주장은 보류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세 유형의 설화 이야기군들이 연행 현장에서 청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옛이야기의 역할에 대해 베텔하임은 “옛 이야기는 더 높은 인격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암시한다.”고 했다.⁵¹⁾ 그렇기 때문에 옛이야기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그림자 호랑이군>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군>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 등 세 유형의 이야기는 발달에 필요한 다음 단계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빼아제는 선택은 아동 자신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베텔하임 또한 빼아제와 같은 생각을 보인다.

어떤 옛이야기가 어떤 나이의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떤 옛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어린이만이 결정할 수 있다. 어린이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결정한다. 이야기가 어린이의 의식과 무의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어린이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⁵²⁾

빼아제와 베텔하임의 통찰을 빌리면 세 유형의 호랑이 이야기군은 어

51)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주옥 옮김, 앞의 책, pp.44~45

52) 위의 책, pp.33~34.

린이들에게 연령에 따른 사랑의 선물이 된다. 그런데 사랑의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선물은 아동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발달을 자극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야기를 어린이가 스스로 선택한다 할 때, 선택된 세 유형의 이야기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선물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림자 호랑이군>은 어린이에게 그림자(shadow)를 대면할 기회를 준다. 호랑이 이야기군을 통해 그림자를 대면하는 것이 선물이 되는 것은 그만큼 그림자를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열등한 의식,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의식, 의식의 고등화 과정에서 억압된 의식 등 그림자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다. 일상에서 억압된 그림자를 의식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그런 만큼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림자 호랑이군>은 사회적 비난을 의식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그림자를 대면할 기회를 준다. 그림자란 적절한 의식화가 수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억압될 때 한 순간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것이다. <그림자 호랑이군>은 그림자를 대면해야 할 발달 단계에 이른 아동들에게 그림자를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군>은 어린이에게 의식과 그림자(shadow)의 대극과 의식의 변화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의식의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은 의식과 대극을 이룬 그림자이다. 의식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그림자의 모습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의식의 영역에 수용되고 인정되면 의식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며,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고 창조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선물임을 인식케 한다.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군>은 그림자의 의식 내 수용과 인정, 그리고 이를 통한 의식의 변화를 실현해야 할 아동들에게 그림자의 작용

을 통한 의식 변화를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은 어린이에게 의식과 그림자(shadow)의 대극합일 곧 역설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 대극합일로서 혹은 역설로서 호랑이는 신성을 갖춘 존재이다. 신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대극의 인정, 수용, 그리고 변화의 결과이다. 호랑이는 속임수를 통해 신을 속인다. 이러한 속성은 그가 여전히 그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정체는 이미 의식과의 대극 합일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된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자 속성이 삶의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은 그림자와 의식의 대극합일이 낳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신성의 호랑이를 통해 보여준다. 곧 그림자의 대극합일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도약임을 보여준다.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은 그림자의 대극합일을 대면해야 할 발달 단계에 이른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게 그림자의 대극합일을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동물 주인공이 트릭스터로 형상화되는 예는 호랑이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희웅에 따르면 한국의 ‘피보 토끼 시리즈’도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동물담의 좋은 예이다.⁵³⁾ 그런데 토끼 설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만과 술책이다. 조희웅도 밝혔듯이 “한국 동물담에서 토끼가 사술을 행하는 화형이 많다는 것은, 토끼가 한국 동물담의 중요한 트릭스터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⁵⁴⁾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명수라는 점이다. 토끼는 기만 및 술책을 부리는 자,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자로 그 정체가 규정된다. 기만과 술책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대표적인 예화가 <지혜로 호랑이 잡은 토끼>⁵⁵⁾이다.

53)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134.

54) 위의 책, p.136.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강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생의 질서를 파괴하고, 약자의 생명마저 육구의 대상으로만 삼는다. 이에 토끼는 기만과 술책을 통해 횡포한 호랑이를 제거함으로써 집단의 안녕을 회복한다.

토끼의 행위가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후대로 갈수록 더욱 강화된다. 이는 <토끼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⁵⁶⁾에서 확인된다.

(자료5) 토끼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

1.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한다.
2. 토끼가 호랑이에게 많은 새를 잡아먹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숲 속으로 데려갔다.
3. 토끼가 호랑이에게 숲 속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일러 주었다.
4. 토끼가 호랑이가 앉아 있는 숲에 빙 둘러 가면서 불을 질렀다.
5. 호랑이가 불타는 소리가 나자 조금 움직였다.
6. 토끼가 새가 달아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했다.
7. 호랑이가 불에 타서 죽었다.
8. 토끼가 호랑이를 둘러메고 가서 나라에 바쳤다.
9. 나라에서 토끼에게 상금을 주고 그를 높이 대우했다.

(자료5)의 8에서 토끼가 잡은 호랑이를 둘러메고 나라에 바치자, 9에서 나라가 그에게 상금을 주고 그를 높이 대우한다. 그의 행위에 상금을 주고 그를 높이 대우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일종의 영웅적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잠재적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토끼가 적대자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것은 분석 심리학적으로 의미를 내포한다. 토끼와 호랑이와의 대결은

55) 한국구비문학대계』5-5, pp.249~252.

56) 한국구비문학대계』8-1, pp.187~189.

의식의 <성장> 과정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⁵⁷⁾ 토끼는 의식의 영역에서 상황의 논리조작을 통해 호랑이로 대표되는 적대자를 물리친다. 이는 호랑이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의식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트릭스터로 규정되는 토끼이지만 토끼는 그림자적 요소를 갖추지 않았음이 이를 반증한다. 애매하고 비정상적인 심리, 모습을 바꿈, 신의 사자이자 모방자, 신성하면서도 외설적인 뺨장이 등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트릭스터 모습을 통해, 영웅적 인물에 가까워지는 모습 등을 통해 토끼는 트릭스터이면서도 그림자 상징과는 거리가 먼 존재임을 보인다. 꽤 많은 동물로 대표되는 여우나 메추라기도 토끼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호랑이와 토끼, 여우, 메추라기들이 동물 트릭스터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림자(shadow) 상징과 관계에서 이들은 구별된다. 호랑이는 전형적인 그림자 속성을 갖춘 트릭스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토끼와 여우, 그리고 메추라기들은 성공하는 트릭스터들로서 그림자의 반대편에 놓인 의식 영역을 상징하는 트릭스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 내 인물로서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역할 또한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는 그림자 영역에서 의식의 발달을 자극하는 발달 모델이라고 한다면 토끼와 메추라기, 또는 여우의 경우는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발달을 자극하는 발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설화 내 호랑이 형상을 대상으로 호랑이의 환상을 빌어 이동

57) 칼 G. Jung, 이윤기 옮김, 앞의 책, pp.125~128.

혹은 청소년의 성장에 대처해온 설화 문학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설화 내 호랑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호랑이의 상징이 향유자인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발달론적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궁극적으로 호랑이 설화가 갖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첫째의 물음에 대해 ‘그림자로서 호랑이’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 ‘그림자의 대극합일로서 호랑이’ 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대표로 하는 호랑이는 무의식의 제1원형인 그림자(shadow)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결의형제>에 등장하는 은혜에 보답한 호랑이는 그림자의 의식 내 수용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곧 호랑이를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상징’으로 규정하였다. <신의 사자>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대표로 하는 호랑이들은 그림자의 대극합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물음에 대해 설화 내 호랑이 형상은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장에 대처해온 설화 문학의 노력이 낳은 산물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아동 혹은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을 자극하는 상위의 발달 단계를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 ‘그림자로서 호랑이군’ 설화는 그림자를 대면해야 할 아동들에게 그림자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변화의 동력으로서 그림자 호랑이군’ 설화는 의식 내 그림자의 수용, 인정,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대면해야 할 아동들에게 이들을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림자의 대극합일 호랑이군’ 설화는 전체성을 향해 노력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들에게 그림자의 대극합일을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설화 내 호랑이를 토끼, 여우, 메추라기 등과 비교한 결과 호랑이는 그림자

(shadow) 영역에서 의식의 발달을 자극하는 발달 모델이라고 한다면 토끼와 메추라기, 그리고 여우의 경우는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발달을 자극하는 발달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의 시작에 앞서 호랑이 설화의 총체적 상징과 그 역할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본고의 결론을 동물 설화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호랑이 설화를 포함한 동물 설화들의 상징이 계몽적·오락적 범주를 포함하여 심층심리와 깊숙이 맞닿아 있으며, 그러기에 그 역할 또한 내면의 성숙과 상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면서 본고는 마지막으로 동물 설화의 전승과 그것의 교육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요섭, 『금강산 호랑이』, 공문사, 1982.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임동권, 『한국의 민담』, 정음사, 197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1)(2)(3)(4)(6)(10), 평민사, 1990.
전라남도 편,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87.
최운식, 『충청남도 민담』, 집문당, 1984.
최웅, 김용구, 『설화』, 국학자료원,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1-4, 2-3, 2-5, 2-6, 3-3, 3-4, 4-6, 5-3, 5-5, 6-5, 6-8, 6-9, 7-11, 7-14, 8-5, 8-6, 8-10, 8-11, 8-12, 8-14. 고려원, 1979-1988.
한상수, 『한국민담선』, 정음사, 1977.

2. 논문

- 김용의,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1)」, 『일본어문학』제1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1, pp.79-114.
- Canda, Edward R., “he Korean Tiger : Trickster and Servant of the Sacred”, *Korea Journal* 21/11, 1981, pp.22-38.

3. 단행본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시현』, 한길사, 2007, pp.1-351.
-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일조각, 1990, pp.1-310.
-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pp.1-231.
- 최연숙, 『동화가 갖는 치유적인 힘』 발표 자료집, 대구미술치료연구소, 2008년 3월, pp.1-26.
- Bettelheim, Bruno,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01, pp.1-256.
- Gersie, Alida & King, Nancy, *Storymaking in Education and Therapy*, Stockholm Institute of Education Press, 1992, pp.1-407.
- Hynes, W.J., *Mythical Trickster Figure-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s*, 1993, pp.33~45.
- Jung, C.G., 윤 저작 번역위원회, 『원형과 무의식』, 숲, 2006. pp.1-432.
- Jung, C.G.,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2005, pp.1-329.
- Kast, Verena, 최연숙 옮김, 『동화와 심리치료』, 열린시선, 2008, pp.1-299.
- Radin, Paul, *The Trickster-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1956, pp.1-211.
- Taylor, Jeremy, 이정규 옮김, 『사람이 날아다니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 동연, 2007, pp.1-315.
- von Franz,, Marie-Louise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Fairy Tales*, Univ. of Dallas, 1978, pp.1-160.

ABSTRACT

The Animal form in folk-tales, a mediator of growth
- Focused on the tiger in folk-tales -

Kim, Ki-Ho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discussed on the symbol and role of the tiger in folk-tales. The tiger is classified into three ones; Tiger as a shadow, Tiger as a conscious shadow, Tiger as a antipole union of shadow. And the three symbols of tiger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growth of children and teenagers. In that children and teenagers choose higher development step to stimulate their growth, the folk-tale group of Tiger as a shadow is a development model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to meet the shadow safely and naturally to children who are supposed to meet the shadow for enlarging and deepening their consciousness. The folk-tale group of Tiger as a conscious shadow is a development model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to meet the process naturally in advance to children who are supposed to meet the process of acceptance, acknowledgement, and change of the shadow in consciousness. Tiger as a antipole union of shadow is a development model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to meet the antipole union of shadow naturally to children or teenagers who are supposed to be in stage to meet the antipole union of shadow.

Key Words Animal folk-tale, Tiger, Shadow, Antipole union, Development model.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